

1월 20일 사건에 대한 사과문

사전 통보 없이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공간 내 자치단체의 기물을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두입술과 생활도서관의 경우 20일이 재논의의 날짜였으나 통보 없이 처리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애포래의 경우 20일이 스스로 기물을 처리하는 날짜였으나 총여에서 임의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7일간 위 세 단체와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위 점에 대해 이 사건과 연관된 세 단체 뿐 아니라 연세의 전체 학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월 27일에 중운위에서 제안한 바대로 단체와의 이후 논의과정에 대해 학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두입술과 생도와 합의

11대 총여와 두입술 편집위원회 대표(이하 두입술), 생활도서관 담당자(이하 생도)는 중운위의 제안에 따라 총여실내로 집기를 원상복귀한 이후 논의를 재개하려 했으나 우선 논의한 후에 집기를 들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월 29일 총여는 공간문제로 두입술과 생도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여는 두입술과 생도에게 예전부터 주지한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소수의 자치단체들만이 총여실내 일부공간을 독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여실 내의 일부분에 여성운동모임을 포함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Timetable을 운영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총여 공간을 차지하던 몇 개의 자치단체들의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수업 조모임에서도 여성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획처장님과의 면담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학내 여성 운동을 지원하는 총여의 방향이며 그곳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날 오전 두입술이 제안하여 그동안 계속 알아보았던 구상대 여학생휴게실이 임시거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총여는 두입술과 생도의 집기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였고, 두입술과 생도는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입술과 생도가 공동 세미나실 이외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위해 연서운동 등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총여가 알아 볼 공간은 앞서 말한 대로 공동 세미나실이 될 것이고, 위의 두 단체가 독립적인 공간을 학교측에 의뢰하게 될때 최선을 다해 돕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세미나실의 경우,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총여실 내부에 둘 것이며 공론화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에 세미나를 할 모임들이 조절하여 Timetable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생도의 경우 도서관 업무를 고려하여 임시로 학생회관의 여학생휴게실에 두는 것이 어떠하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휴는 여학우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1대 총여에서는 학우들 내에서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생도는 학우들의 동의와 인정을 받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 애포래와의 합의

애포래의 경우, 20일까지 합의된 부분이 총여실의 일부 공간에 집기를 내어 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그곳으로 집기를 옮기기로 합의하고 이를 11대 총여 집행부가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1대 총여는 몇몇 단체가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상시적 단체 및 조모임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세미나실을 총여실내에 두고 앞으로도 그러한 공간을 위해 학교측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상시적 단체나 작은 모임들을 위한 임시 공동 세미나실을 계획하고 있으니 사용신청 바랍니다. 현재 방학중이라 상시적인 단체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 예상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여성학 관련 수업을 다니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의 방문도 환영합니다. 접수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총여와 접수한 모임들이 합의하여 Time table을 정하고 그 외 사용 규칙에 대해서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및 문의는 총여실(361 - 3645)로 해 주십시오.

여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회관 내에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여휴를 좀 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한 생활 도서관에 대한 학우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회관 여휴에 생활도서관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임시로 배치하게 될 것이고 학기가 시작되면 전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학생회관 여휴를 새롭게 구성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생활도서관에서도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약 여휴에 배치하게 된다면 남학우들도 고려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다시 한번 공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에 생활 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휴게실 사용의 주체인 여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